

#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on the Perceived Financial Management Problems of U.S. College Students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BK 21 연구원 백은영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배미경  
건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교수 이승신

School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BK 21 Researcher* : Eunyoung Baek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Mi Kyeong Bae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 Housing, Konkuk University

*Professor* : Seung Sin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문헌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nancial education needs of college students and how financial education affected their perceived financial management problem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eed for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tudents was relatively high and that students were interested in various topics within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Formal financial education was found to have a

Corresponding Author: Eunyoung Baek, Ph. D., BK 21 Researcher School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53 Myeongnyun-dong, 3ga, Jongno-gu, Seoul 110-745 Tel: 82-2-760-1286 Fax: 82-2-745-4367 E-mail: eunibaek@korea.com

positive impact on student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y reducing the probability of having problems with managing financial affairs. In addition, students' use of credit card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problems with managing financial affairs.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we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재무교육 요구도(Financial education needs), 재무관리 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신용카드 사용(The use of credit cards)

## I. 서론

최근 소비자 금융을 둘러싼 경제 환경들이 복잡해지고 자산을 투자할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면서(Bae & Sandager, 1997; Bailey, Sorhaindo, & Garman, 2003) 개인 스스로의 재무관리 능력(financial literacy)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Chen & Volpe, 1998). 그 결과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재무지식 교육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Bailey et al, 2003). 그러나 대다수는 재무교육에 대해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Garman & Leech, 1996), 재무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재무지식이나 기술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g., Bailey et al, 2003; Chen & Volpe, 1998; Volpe, Chen, & Pavlicko, 1996).

몇몇 연구들은 직장 내에서의 재무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Joo & Garman, 1998; Bailey et al, 2003),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재무지식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기에 기본적인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지식을 습득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은 수준의 소비자라면 스스로 재정문제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시기는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모에게 의존 하던 상태에서 점차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재무지식, 재정관리행동,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는 그들의 현재 생활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상태 및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는 졸업 후 독립된 성인으로서 실질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의 재무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재무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김정

자·홍정하, 2002). 그러나 재정 상담가 및 교육자들은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재정 문제에 대해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Lowell(1995)은 대학생들의 재정적 독립을 다룬 그의 책에서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재무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수록 적절한 재무관리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며 따라서 각자가 설정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한다(Chen & Volpe, 1998; Markovich & DeVaney, 1997).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4년 새해 가장 큰 관심사는 '재테크'(45.7%)로서 가정의 화목과 건강(22.1%)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다른 조사에서도 새해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재정문제(47%)이며, 32%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재테크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03). 이와 같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국민 은행 연구소가 우리나라 2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36%는 학교에서 소비생활이나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은행연구소, 2002). 더구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저축의 필요성이나 올바른 소비생활과 같이 대부분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실용적인 재테크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국민은행연구소, 2002)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용적인 재무지식 교육은 대부분 1회성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재무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다. 더욱이 대학시기의 재무지식은 졸업 후 미래의 재정적 지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무지식과 함께 대학 시기에 행하던 재정관리 행동양식들은 미래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기에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20대의 경우 대학 교육기를 금융관련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연구소, 2002).

대학 시기의 재무관련 행동이나 관련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재무지식이나 재무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 재정관리 행동이나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학생의 재무문제에 대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 연구들 중에도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부채에 대한 연구에 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지식이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Chen & Volpe, 1998), 재무지식 또는 정규교육으로서의 재무교육이 학생들의 재무관리 행동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과 관련한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시민단체나 금융권 연구소들이 실시한 실태 파악 위주의 조사가 대부분으로(김경자·홍정하, 2002) 이 분야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나 관심사에 비해 학문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요구도 파악 및 정규과목으로 수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재무관리 행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구체적인 교육적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나 유용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 정규 과목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재무지식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 시도되었다. 자료는 개인 재정설계 과목이 대학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전공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 대학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재무관리 행동과 관련 교육에 대해 국내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및 국내 대학에서의 재무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문헌고찰

### 1. 재무지식 및 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관련한 연구

재무지식 수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Chen & Volpe, 1998), 재무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도 수준을 조사한 것들이 대부분 이었다(eg., Bae & Sandager, 1997; Bailey, Sorhaindo, & Garman, 2003; Doll, 2000).

Bae와 Sandager (1997)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서비스와 관련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재정설계사로부터 얻고자 하는 재무지식들은 은퇴계획, 투자상담, 그리고 절세 방법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각각에 대한 관심도는 79%, 75%,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Doll(2000)은 재무교육전공 학생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재무상담 및 설계센터를 교내에 운영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재무지식과 재무설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재무교육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가장 관심있는 주제로는 다양한 투자 방법,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방법, 재무목표의 평가 및 재조정, 그리고 은퇴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3%가 재무상담 및 설계 센터가 유익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67%는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재무설계 및 상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나타내 주었다.

Bailey 외(2003)는 신용 상담센터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채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떠한 재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48%) 예산계획 및 금전관리, 그리고 장래의 필요에 대비한 저축방법등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다음으로 37%는 은퇴계획에 관심이 있었고, 31%는 매달 지불하는 신용카드 빚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보여 재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재정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소비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용상담 센터를 찾는 고객들의 경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은퇴계획과 같은 미래 지향적 주제 못지 않게 현재 당면한 금전관리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지향적 주제에 대한 교육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들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교육방식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는데, Gorhom, DeVaney와 Bechman(1998)은 일대일교육 또는 소규모 그룹을 이용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재무관리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다양한 워크북을 이용하는 것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실천연습을 시키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Koonce(1990) 역시 일대일 교육이 저소득층 가계 대상의 재무교육을 실시할 때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관련연구로 국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식 수준과 금융정보 요구에 관한 연구(김경자, 1998)가 이루어졌는데,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부 소비자들의 금융정보에 대한 요구 수준은 각 항목 별로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환경, 보험, 저축과 투자의 3 영역 나누어 살펴

보았을 때에는 이자율, 금융/보험상품 피해구제 방법,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았던 반면, 투자영역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정보 요구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금융지식 여부가 금융정보 요구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나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대학교의 재무설계 및 개인재무관리 과목이 개설되면 어떤 학생들이 수강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수행된 Pope과 Howe(1991)의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경우, 은퇴 계획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으나, 현재 학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 및 지출에 대한 분석에 관심이 높았고, 얼마나 적절한 수준의 건강 보험을 산정해서 들것이나 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다. Markovich와 DeVaney(1997)의 연구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재정설계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부터 5 '매우 동의한다' 의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4.06 수준을 나타내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의 한 다른 연구에서는(Lyons & Hunt, 2003) 2년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신용사용 및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연구하였는데, 반 이상의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재무관련 지식을 얻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의 재무지식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몇 그룹의 심층 토론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대표적인 7가지 주제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학생들은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 좋은 신용기록(credit history) 쌓아가는 방법, 부채 및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내의 재정자원(장학금이나 재정보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서인주, 두경자(2003)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단계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는데,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 중에는 카드 분실, 도난, 대여시 대처방법 및 보상방법, 신용카드의 합리적 사용법, 신용불량자 등록 및 절차, 예방법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지식 및 교육과 관련된 요구수준 및 유용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재무지식이나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대학생들의 재무지식이나 교육적 요구도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연구 중에는 주부라는 특정 대상에 한정지어 금융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거나 재무관리 부분 중 신용카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 지식에 대한 요구도를 다루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 개인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대학생들은 개인 재무교육과 관련한 과목,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제별로는 미래를 대비한 은퇴계획 등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법, 즉 예산 수립 및 관리, 부채 및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재무 지식 및 교육의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영향력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무지식이나 학교에서의 재무교육이 실질적으로 재무관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금전관리 기술

을 향상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Danes, Huddleston-Casas, & Boyece, 1997), 어려서 재정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재정적으로 풍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Stanger, 1997).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재무지식이나 교육여부가 재무상담사들이 권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재무관리 행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Godwin(1994)은 가계의 현금흐름관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재무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가계부 기록을 더 많이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인 Parrotta와 Johnson(1998)의 연구에서는 권장되는 여러 가지 재무관리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재무지식도 중요하지만 재정관리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은 정기적으로 재무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학생들이 재무관리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Markovich와 DeVaney(1997)는 무작위로 추출된 졸업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개인 재정관련 지식과 재무관리 행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신용사용, 보험,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지식들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학생들의 신용 사용 및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에 대한 지식은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중 43% 정도의 학생들은 4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일정 금액을 연체하면,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개인 재정설계 과목이 학생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으며 지식수준에 대한 만족감이 재무관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학생들에 대한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hen과 Volpe(1998)의 연구에서는, 비상경계 전공자, 여성, 성적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이거나, 30세 이하, 적은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비해 비교적 더 적은 재무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재무 지식은 그들의 저축, 대출, 투자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생들 중 재무관련 지식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재무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대학생들이 실제 사회에서 재정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에서 개인 재정 관련 지식을 더욱 증진시켜야 함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자·홍정하, 2002)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재무관리 행태 연구에서 학생들의 재무관련 지식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관리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지식과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개인재무관리 교육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재무교육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간단한 상관관계나 빈도, 비율 분석결과를 통하여 재무교육이 재무관리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 즉,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거나 적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을 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배제하였을 때 재무교육여부가 학생들로 하여금 원활하게 재무관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1) 대학생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 2) 재무교육에 대한 유용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3)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학생들의 재무관리 행동 문제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자료 및 표본

대학생들의 재무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도, 재정관

련 지식, 재정에 대한 인지도 및 재무 문제, 행동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관련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중부의 한 종합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재무지식, 재정에 대한 인지도 및 행태조사 (Survey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Knowledge, Perception, and Practice)가 실시되었다. 학교의 교내 그룹들을 대상으로 개인 재무설계와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학생들은 세미나 전후에 걸쳐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내용은 재무관련 지식, 개인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및 인지, 재무관리 행동,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묻는 총 196개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조사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대학생의 재무지식, 인지 및 행태 조사의 일부 자료로서 대학생들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지도 및 학생들의 재정관리 행동에 관한 내용, 대학에서 어떠한 내용의 재무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것과 재무교육 세미나 내용 중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미나 후에 (post-seminar) 응답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최종 표본으로는 총 643명의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 3. 변수 측정 방법

대학생들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여러 항목들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에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의 재무교육 학습여부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현재 재무관리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고안된 문항을 이용해 문제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항변수로 측정된 것으로서 재무관리 행동수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주관적 문제 인지를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재무교육 학습여부 외에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재정

관련 행동양식이 포함되었다. 변수의 측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 4. 연구모델 및 통계방법

연구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과 대학생들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비율과 같은 기술적 통계방법이 사용되었다. 대학생들의 재무교육 학습

여부가 재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짓분석이 수행되었다. 로짓모형을 적용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text{Log} (P_i / (1 - P_i))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i X_i \dots (1)$$

$P_i$ 는  $i$ 번째 학생이 재정관리행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며,  $X_i$ 는 설명변수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X_i$ 는 크게  $X_1$ (재무교육 학습여부)외에도  $X_2$ (인구통계학적

<표 1> 변수의 측정 방법

변 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재무관리 행동에 있어서의 주관적 문제 인지	문제 있음 1; 그렇지 않음 0
독립변수 재무교육 학습여부	
정규 재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재무교육을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했는지 여부	개인 재무설계와 관련하여 스스로 학습한 적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학생 1; 여학생 0
성적	학생들이 보고한 평균 성적
소득	용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
가족소득	
상	< \$100,000
중	\$ 50,000 - \$99,999
하	\$ 36,000 - \$49,999
학년	
1학년	1학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학년	2학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3학년	3학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4학년	4학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재무관리행태	
규칙적 저축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예산짜기	예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신용카드수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갯수
신용카드 상환습관	
모두 상환	카드대금을 한번에 모두 지불시 1; 그렇지 않으면 0
최소 금액만 상환	최소금액만 지불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신용에 대한 지식	신용사용관련 지식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신용카드 부채	신용카드 부채가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특성),  $X_3$ (재무관리 행태)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beta$ 는 각각의 설명변수에 상응하는 계수의 벡터이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되어진 643명의 대학생 가운데 재무관리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36%로 1/3을 약간 상회하는 수의 학생들이 재무관리 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서 재무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1/4인 25%에 해당되었고,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했던 적이 있었던 학생도 비슷한 수준인 27%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재무관리행태를 살펴보면, 예산수립 및 저축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28%, 26%였다. 평균 2개의 신용카드를 보유<sup>1)</sup>하고 있었으며 54% 정도의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하고 있는 반면, 24%는 최소 금액만 상환하는 형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 2.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프로그램의 유용성

대학생들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대학 내 재정관련 프로그램 및 과정에 대한 요구도는 각 분야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학생들의 경우, 재정관리 세미나에 참석했던 학생들이므로 재정관리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으므로 전체 일반 대학생들에 대해 일반화 하기에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평균(SD)
종속변수	
재무관리 행동에 있어서의 주관적 문제 인지	36.00%
독립변수	
재무교육 학습여부	
정규 재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25.00%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했는지 여부	26.50%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	38.40%
여	61.60%
성적	3.13(0.29)
소득	918.94(197.75)
가족생활수준	
상	30.17%
중	44.83%
하	25.00%
학년	
1학년	11.07%
2학년	19.85%
3학년	29.77%
4학년	39.31%
재무관리행태	
규칙적 저축	11.21%
예산수립	16.25%
신용카드수	2.06(1.16)
신용카드 상환습관	
모두 상환	54.46%
최소 금액만 상환	23.66%
신용에 대한 지식	63.14%
학자금 대출	28.19%
신용카드 부채	26.48%

1)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38%에 불과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습관, 신용카드 부채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은 1, 그렇지 않은 사람은 0으로 측정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있으나 카드 부채가 없는 사람과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었다.



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공, 학년, 성별 등을 불문하고 수집되어진 자료이므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요구도 수준이 높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재정 관련 프로그램 및 과정에 대한 요구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인 재무설계 과정을 수강하기를 원했으며, 83퍼센트의 학생들은 투자 및 저축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했다. 학생들 중에는 학자금 대출등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율을 감소시키는 방법(77%)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은퇴를 위한 준비(67%)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또한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도 59%나 되었다. 대학생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e.g., Bae & Sandager, 1997; Doll, 2000) 유사하게 투자 및 저축방법 그리고 은퇴준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일반인과는 달리 이자율 감소방법 및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에의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를 위한 재무 설계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재정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에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ope과 Howe(1991) 그리고 Lyons와 Hunt(2003)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표 3〉 대학생들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sup>2)</sup>

대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재정설계 프로그램	%
전반적인 재정설계 (FP)	85%
저축 및 투자 방법	83%
신용카드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	77%
은퇴 계획	67%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방법	59%
재정 설계 세미나 기간 중 유용했던 프로그램	
저축 및 투자방법	25%
개인재정설계일반	22%
예산 세우기 및 적절한 사용방법	19%
신용카드 사용법	11%

주: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복수 응답함.

학생들의 대학 내 재정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교육 세미나 실시 후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에게 실시된 세미나가 정규과목이거나 학점을 주는 형태가 아닌 순수 연구목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게끔 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그 결과 어떤 경우에는 세미나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용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던 프로그램은 투자 및 저축방법이었으며 (25%), 개인재정설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이 유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22%, 예산 수립 및 예산의 사용이 유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9%였고 11%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이 유용했다고 응답하였다.

### 3. 재무교육의 재무행동에 대한 영향력

재무교육 여부가 학생들의 개인 재무관리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재무교육을 학습한 경험 유무와 개인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함께 분석되어졌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은 카이스퀘어 값이 0.001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델의 적합도 (goodness of fit)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관찰치를 정확히 추정한 예측치로 나는 Concordant rate(일치율)은 72%로 나타나 모델의 설명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표 3〉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항목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다.

#### 대학 교과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재무관리 프로그램:

예산 및 현금관리 방법(48%) 자동차 및 내구재 구매(33%) 주택마련 및 모기지 활용(28%) 세금관리(25%) 보험설계(22%) 자산이전 설계(7%) 기타(18%)

#### 세미나 기간 중 유용했던 프로그램:

은퇴계획(9%) 보험(7%) 세금 관리(7%) 부동산 관련 주제(5%) 자산이전 설계(3%) 기타(6%)

대학생들의 재정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 그룹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무관리관련 교육 수강여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개인 재정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개인 재무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개인 재무 설계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

려움을 가질 확률은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는 학생에 비해 8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스로 학습한 경험은 개인 재무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가운데서는 학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은 신입생에 비해 재정관리 문제를 가질 가능

〈표 4〉 주관적 재무관리행동 문제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Beta	SE	Odds Ratio
재무교육 학습여부			
정규 재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1.638**	0.575	0.194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했는지 여부	-0.212	0.509	0.809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			
남	-0.037	0.392	0.964
성적	-0.273	0.424	0.761
소득	-0.000	0.000	1.000
가족생활수준 (중)			
상	-0.518	0.465	0.596
하	-0.061	0.450	0.941
학년 (1학년)			
2학년	1.562*	0.666	4.777
3학년	2.450***	0.572	11.591
4학년	2.353***	0.592	10.521
재무관리행태			
규칙적 저축	0.753	0.403	2.123
예산수립	-0.183	0.506	0.802
신용카드수	-0.216*	0.106	0.806
신용카드 상환습관			
모두 상환	-0.907*	0.408	0.404
최소 금액만 상환	2.091***	0.485	8.096
신용에 대한 지식	-0.702	0.364	0.805
학자금 대출	0.855*	0.427	2.351
신용카드 부채	0.007	0.416	1.007
상수	-2.481	1.449	
-2 log likelihood		270.143	
Chi-square		159.434***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이 4배였으며, 3, 4학년 또한 재정관리 문제를 가질 확률이 신입생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재정관련 문제들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재의 재정관련 문제들뿐 아니라 졸업 후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들 자신의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도 증가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ira & Anderson, 2000; Davies & Lea, 1995), 학생들의 신용카드 부채 및 학자금 대출액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경제적인 상황과 더불어 부채의 증가는 3, 4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에 비해 재정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행태와 관련된 변수들 가운데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변수들과 학자금 대출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신용 카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이 재무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예상밖의 결과이나, 흥미롭게도 선행연구(Hayhoe, Leach, Turner, Bruin, & Lawrence, 2000)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 중 더 많은 수의 신용 카드를 가진 학생들은 그들의 신용카드 부채관리에 관해 질문했을 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신용카드를 적게 소지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신용카드 대금 지불 행동양식은 학생들의 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신용 카드 부채를 완납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재무관리에 있어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한의 잔액만을 지불한 학생들이 최소한의 금액 이상을 낸 학생들에 비해 재무관리 수행에 있어 문제를 가질 가능성은 여덟배나 더 높았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과 돈 관리에 있어서 부적인 관계를 발견한 Zhou와 Su(2001)의 연구결과와 같이 학생들의 학자금 대

출은 학생들이 재무관리를 수행하는데 문제를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대학생 학자금 장기 대출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출 중개업자들이 성행하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재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자금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금리는 연 24-36%에 달하며 이자를 연체하면 최고 66%까지 올라 정기적 수입이 없는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대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수행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 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지식교육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에서 개인 재무설계가 전공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으로도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학생들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재무교육 여부가 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 행동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와 같은 기구가 발족되어지고,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대학생들의 금융교육 및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학생들은 재정설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대학교 교과과정에서 수강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저축 및 투자 방법 또는 은퇴 계획과 같이 미래 지향적인 주제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합리적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 현재 지향적인 주제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보다는 재정설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심도있게 구성하되, 기본적인 분야로 여겨지는 예산수립 및 합리적인 지출, 현금관리, 신용관리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의 재정설계를 위한 지식뿐 아니라 현재 학생들 스스로의 재무문제부터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무교육 학습여부는 학생들의 재무관리 형태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과목으로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와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의 두가지 변수가 분석되어졌는데,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한 경우는 학생들이 재무관리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규과목으로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일 경우 재무관리 수행에 문제를 가질 확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들이(e.g., Chen & Volpe, 1998; Markovich & DeVaney, 1997) 재무지식이나 교육여부가 재무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사했던 바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개인 재무관리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현재 뿐 아니라 나아가 미래에 사회인으로서의 재무관리 수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1/4에 불과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개인 재무관련 교육에 대한 부족 및 재무지식의 부족을 지적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으며 (e.g., Chen & Volpe, 1998; Volpe, Chen, &

Palicko, 1996), 따라서 정규과목으로서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정규과목으로 수강한 것이 재무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발적으로 참석하게끔 고안된 세미나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율은 저조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학점을 이수하는 정규과목으로 제공될 경우 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방법, 매체 등 어떤 형태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결과들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요구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소비 금융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가운데 4명중 1명이 신용카드 빚에 의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국민은행, 2002) 이와 관련하여 Susswein(1995)은 학생들의 신용사용과 관련한 연구에서 신용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졸업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기본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인주와 두경자의 연구(2003)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교육이 독립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대학생과 같이 젊은층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용불량 증가율을 줄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탐색적 연구로 시도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

도 및 효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재무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현재 재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잠재적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향후 국내 대학생 및 청소년들에 대한 재무관리의식제고 및 재무관리교육 실태를 비교 연구하여 정책입안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본 연구는 미국에서 수집된 2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표본 및 몇몇 변수의 측정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재무관리 행동 문제 인지와 같은 변수의 경우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로 측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도를 최소한 하나 이상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면 더욱 유용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무관리 행동문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지,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등의 질문을 덧붙인다면 학생들을 위한 재무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할 때 어떤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정형화된 항목별로 질문하게 되면 학생들은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각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응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지하고 있는 재정관리상의 문제와 결부시켜 봄으로서 최소한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전공을 불문하고 학년 및 성별에 관계없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나, 미증부의 한 대학에서 수집된 것이며 세미나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교육 효과를 살펴보고자 할 때 학습여부의 측정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본다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나누어 교육효과를 측정해 보는 경우와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1년 혹은 5년 후를 추적해 나가면서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장적 연구설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경자(1998).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금융정보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105-116.
- 김경자, 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 재무관리 행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17-122.
- 김정인, 송 훈, 나상록(2002). 20대의 소비, 금융형태. 국민은행 연구소 조사결과 분석보고서.
- 서인주, 두경자(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1(12), 117-132.
- Bae, S. C., & Sandager, J. P. (1997). What consumers look for in financial planne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9-16.
- Bailey, W. C., Sorhaindo, B., & Garman, T. E. (2003). Educational desires of credit counsel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1), 51-56.
- Chen, H. & Volpe, R. P. (1998). An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 students. *Financial Services Review*, 7(2), 107-128.
- Danes, S., Huddleston-Casas, C., & Boyce, L. (1997). An evaluation of a financial planning curriculum for teen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33-44.
- Davis, E. & Lea, S. E. G. (1995). Students attitudes to students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63-679.
- Doll, K. M. (2000). Who would us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services on university campuses? Evidence from students, staff and faculty.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22-131.
- Godwin, D. (199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newlyweds' cash flow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161-190.
- Gorham, E. E., DeVaney, S. A., & Bechman, J. C. (1998). Adoption of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A program assessment. *Journal of Extension*, 36(2), (<http://www.joe.org/joe/1998spring/a5.html>)
- Hayhoe, C. R., Leach, L. J., Turner, P. R., Bruin, M. J., & Lawrence, F. C. (2000). Differences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1), 113-133.
- Hira, T. K. & Anderson, M. M. (2001). Financial beliefs, feeling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by gender and grade level. *Proceedings of Eastern Family Economics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0-53.
- Hira, T. K., Anderson, M. M., & Petersen, K. (2000). What do students know about their education debt and its impact on their life after graduation? *Th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30(1), 7-19.
- Joo, S., & Garman, E. T. (1998). Personal financial wellness may be the missing factor in understanding and reducing worker absenteeism. *Personal Finances and Worker Productivity*, 2(2), 172-182.
- Koonce, J. C. (1990). Helping low-income elderly with money management. *Journal of Extension*, 28(3), (<http://www.joe.org/joe/1990fall/a3.html>)
- Lowell, J. (1995). *How to survive in the real world: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recent graduate*. New York: Penguin Books.
- Lyons, A. C., & Hunt, J. L. (2003). The credit practices and financial education need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63-74.
- Markovich, C. A. & DeVaney, S. A. (1997). College seniors personal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3), 61-65.
- Parotta, J. L., & Johnson, P. J. (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Pope, R. A., & Howe, T. S. (1991).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students interested in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79-96.
- Stanger, T. (1997). Future debtors of America. *Consumer Reports*, 62, 16-19.
- Susswien, R. (1995). College students and credit cards: A privilege earned? *Credit World*, 83(5), 21-23.
- Volpe, R. P., Chen, H., & Pavlicko, J. J. (1996). Personal investment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A survey. *Financial Practice and Education*, 6(2), 86-94.
- Zhou, L. & Su, H-J. (2000). Predicting college student debt: An exploratory study on sociodemographic, economic, attitudin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33-140.

매일경제(2003). PCA생명 3778명 설문. 47% 재정문제 가장 고민. 2003년 12월 31일자. (<http://news/>

[empas.com/issue/show.tsp/326/20031231n01641/](http://empas.com/issue/show.tsp/326/20031231n01641/))

[www.payopen.co.kr](http://www.payopen.co.kr)

(2004년 4월 30일 접수, 2004년 8월 20일 채택)